

韓國의 經濟成長과 産業構造 再編成에 關한 研究

高 南 旭

目	次
一. 問題의 提起	2. 構造高度化의 基本方向
二. 産業構造 再編成의 一般傾向	3. 主軸産業의 重化學工業
1. 經濟成長과 産業構造高度化	4. 最適成長經路와 産業構造
2. 産業別 構造行態	四. 産業構造 再編成의 基本課題
1) 産業 및 就業構造	1. 投資構造 및 資本動員體制
2) 工業 및 投資構造	2. 匯儲構造 및 勞動力需給
3) 産業別 生産性 隔差	3. 技術開發
三. 長期經濟成長과 構造高度化의 展望	4. 資源確保의 合理的體制
1. 最適産業構造 再編成의 條件	5. 規模의 經濟性
	五. 結 論

[summary]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By KO NAM-UOOK

I

The matter of policy for a reorgan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is insufficient for us to decide some industry as leading sector and develop one up to a certain degree.

We must solve how we can develop one. In doing so there are a lot of problems to solve. It is involved in the choice and formation of new export industries in the meaning that its need lies in not only the high-degree development of economy but also the rapid increase of exports.

The matter of policy for reorgan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demands a huge investment to form leading industry.

Also it demands the formation of the capital in a large scale to develop the heavy

chemical industries. In another words, it demands much capital in the fact that it chooses and develop the industries for capital goods and export industries. In the case we form the leading industries in priority we need the capital of much money to develop other industries.

I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leading industries, that is to say, propulsion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ies demands power of labour in quality and quantity, while the ensurance of raw material, the renovation of industrial technoligy and ferma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are brought. The positive propulsion of heavy chemical industries are required to be considered the move in power of labour because the change of the supply and demand in the labour is anticipated according to the enlargement of the production scale. In addition the matter of the ensurance of much raw material and the renovating industrial technology are continually requested. Of course the matters as the ensurance of raw material and the renov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must not only be sincerely dealt with in refere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ies but also be done in relation to the increase of the export in the heavy chemical industries, so that matter must be bneficially solved in the point of competition of exports.

II

In the efforts to develop the heavy chemical industries the formation of the leading industries which are superior in the competition of exports is necessarily requested to enlarge in scale.

The effort to systemize the industrial activity in order to increase economic efficiency is liable to check useful competition.

The propulsion of the matter of policy for a high standard of industrial sturcture will cause monopoly to be strengthened in the long run and several harmful factors to happen.

These will become negative factors with air pollution and poisoning of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are aroused by the impulsion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ies.

The negative side like this should not be left as it is. Though scale of economy

should act to the best of its ability, the evil of monopoly should be removed and limited.

In this means we should know how the structure of industry is formed. In the early step of industrialization it has been neglected and has consciously been avoided in a certain degree.

The result has brought about the lack of the policy of industrial organization and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has been decreased.

IV

The process of the enlargement for productivity will not always continue as it is. Monopoly, concentration of industries and production are politically necessary, but monopolistic activity and harms should be strictly limited in the side of market activity and the result of activity.

In this means the matter of policy for a high standard of industrial structure is raising the necessity to develop new policy in the side of industrial organization

The impulsion of the matter of policy for a high standard of industrial structure must to be positively formed social overhead capital.

Today we need to form several large scale industrial field and introduce several foreign investment through the enlargement of industrial scale.

At the same time we consider the limited conditions in order to put unbalanced social capital into right in several regions.

we can say to the conclusion the matter of policy for a high standard of industrial structure is not simple and involves several problems to solve.

一. 問題의 提起

經濟의 高度成長과 輸出의 急速한 增大를 追求하는 政策은 經濟構造의 均衡關係와 產業構造의 變動에 關한 條件을 고려하지 않은 量的經濟政策에 불과하다. 量的擴大政策의 質的側面을 고려하지 않을 때 產業間的 不均衡成長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調和있는 政策은 量的擴大를 質的條件과 一致시켜야만 한다. 量的擴大政策의 目標가 經濟成長率의 增大이거나 輸出의 增大이거나 間に 同時에 經濟構造의 高度化를 隨伴하게 되는 것이다. 즉 經濟成長과 輸出增大를 追求하는 政策은 반드시 經濟構造의 均衡關係와 產業構造에 關한 條件을 變動시킨다.

한편 經濟成長과 輸出增大는 그 自体 量的인 變化를 가지면서 同時에 生産函數에 變化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서 生産物市場, 勞動市場, 貿易市場에 새로운 關係를 가져오며 다시 諸市場間的 關係를 變化시키지만 生産函數를 바람직한 것으로 展開한다는 保證은 없으며 諸市場과 諸市場間的 均衡化를 반드시 意味하는 것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 그러한 政策은 經濟構造의 均衡化를 가져오는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도리어 均衡을 파괴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量的政策은 成長을 追求하고 輸出增大를 꾀하는 경우는 이와같은 諸市場과 諸市場間的 均衡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經濟成長과 輸出增大는 經濟構造의 變動과 더불어 產業構造에 對해서도 變動을 가져온다. 政策的으로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意圖하던 안하던 間に 그것은 반드시 結果되고야 한다. 政策的으로 意圖하는 경우에는 經濟成長과 輸出增大를 보다 效率的으로 促進할 수 있고 政策的으로 意圖하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試行錯誤의 過程을 겪고 따라서 經濟成長과 輸出增大 自体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經濟成長과 輸出增大를 追求하는 量的擴大政策은 단순한 量的擴大에 그칠 수는 없다. 經濟의 質的側面도 아울러 고려에 넣은 것이어야 한다.

經濟構造의 均衡條件을 따지면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展開되는 產業活動의 構造의 諸條件을 규명하여야만 經濟成長과 輸出增大를 보다 效率的으로 促進할 수 있는 것이다.

現在 政府當局이 내세우고 있는 經濟政策의 二大目標과 할 수 있는 高度成長과 輸出의 急速한 擴大를 達成하는 過程에 있어서도 產業活動의 構造의 諸條件을 규명하여야만 한다.

合理的인 觀點에서 이루어지는 政策은 調和된 것일수밖에 없는 것이고 成長을 連

成하려는 努力과 동시에 經濟構造의 改善과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위한 努力을 또한 要求하는 것이다.

經濟成長이나 輸出增大를 效率的으로 促進하기 위해 經濟構造의 改善과 產業構造의 高度化가 必要한 까닭은 經濟構造의 改善이나 產業構造의 高度化가 보다 나은 生産函數에의 移動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經濟構造를 生産物市場, 資本市場, 勞動市場, 貿易市場의 均衡關係라고 말한다면 한편 產業構造는 國民經濟的인 觀點에서 본 生産函數의 狀態를 反映한 것이라고 볼수 있고 經濟構造의 改善은 諸市場과 諸市場間의 均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生産函數가 보다 나은 狀態로 移動하는 것이며 따라서 經濟成長을 보다 效率的으로 促進할수 있는 것이다. 產業構造의 高度化도 그것은 서로 다른 生産函數를 갖는 產業의 全體的인 關係가 劣位의 生産函數로 부터 優位의 生産函數로 移動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生産函數의 移動에 의하여 生産力은 發展하게 되고 經濟成長은 물론 對外競爭力도 強化될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產業構造高度化는 보다 나은 生産函數에의 移動을 뜻하는 것이고 生産力의 發展을 위한 必要不可缺한 條件이면서 經濟成長을 「效率的으로」 促進하기 위한 基本要件이 되는 것이다.

本稿가 產業構造高度化에 따르는 課題를 다루려는 것도 바로 이런 見地에서 考察하려는 것이다.

二. 產業構造再編成의 一般傾向

1. 經濟成長과 產業構造高度化

經濟成長 또는 經濟發展이란 經濟社會의 實質國民所得이 長期에 걸쳐 增大하는 過程이라고 보통 정의한다.

Morrice Dobb는 經濟成長에 있어서 動學的인 要因으로서 分業, 資本形成, 技術革新의 3要因을 들고 있으나 이들 要素도 經濟構造와 產業構造의 變動에 따라 그것들의 生産函數에의 寄與도는 달라진다고 보겠다.

즉 一般的으로 經濟成長의 過程은 產業構造의 變動을 수반한다.

產業構造를 좁은 意味로 解析할때에는 各產業部門 내지 各種의 財貨의 生産部門의 社會的 總生産에 對한 比率을 意味하며 이에 反하여 넓은 意味의 產業構造는 產業의 存在樣式 내지 狀況을 말한다.

產業構造를 넓은 意味에서 取扱할때에는 다음 3가지 構造問題를 생각할수 있다.⁽¹⁾

1) 山田雄三外 5人共著, 日本經濟分析, 1956. PP.63-109

1. 産業의 國際的 構造 2. 産業의 生産力構造 3. 産業의 經營構造 이점이 갖는
意味는 一般으로 經濟의 發展은 産業構造를 高度化시키는 것이다.

Colin Clark에 의하면 主軸(主導)産業部門이 잇달아 交替하는 過程에서 經濟는 成
長한다고 말할수 있다.²⁾

① 第1次産業의 人口와 所得의 比重은 近代的 經濟成長의 全過程을 通하여 계속해서
減少하는 傾向이 있다.

② 第2次産業의 人口와 所得의 比重은 近代的 成長過程의 前半에서는 着實히 增大하
여 왔으나 그 다음 期間에 들어서서는 增加率의 鈍化를 보여주었다.

③ 第3次 産業의 人口와 所得의 比重은 近代的 經濟成長의 全過程을 通하여 끊임없
이 增大하여오는 傾向을 보여주었다.

産業構造의 概念을 廣意로 解析하면 成長過程은 以上과 같은 産業構造의 變動을 가
져왔는데 이것은 經濟成長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에서 産業構造는 高度化하
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서 成長過程에서 이와같은 産業構造變
動이 結果되는 것인가.

이에 關한 要因을 需要와 供給의 側面에서 보면 <表 1-1>, <表 1-2>와 같이
分類, 要約할수 있다.³⁾

産業構造高度化의 需要側要因

<表 1-1>

區 分	1 次 産 業	2 次 産 業	3 次 産 業
代表的 品目	食 料	衣類 및 住居	教育, 娛樂
財의 性格	必 需 品	便 宜 品	享 樂 品
需要의 必要性	第 1 次	第 2 次	第 3 次
需要의 飽和度	빨 리 到 達	比較的 늦게 到着	거의 無限
需要의 所得彈力性	낮 다	比較적 높다	높 다

넓은 意味에서의 産業構造變動은 以上과 같은 要因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좁은 意
味에서 産業構造의 變動이라 할때는 工業構造의 變動을 뜻한다.

工業構造의 變動은 一般的으로 最初의 主軸産業은 輕工業 또는 消費財産業이 있고
그 다음이 重化學工業 또는 資本財産業이었다.

따라서 産業構造의 高度化는 消費財 위주의 産業構造로 부터 資本財産業의 比重增
대로도 파악할수 있고 重化學工業比率의 增大로도 表現되기도 한다.

2) C.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1940.

3) 産業合理化運動本部, 産業構造高度化 政策, 1973. P. 16

産業構造高度化의 供給側要因

<表 1-2>

分 區	1 次 産 業	2 次 産 業	3 次 産 業
代 表 産 業	農 業	製 造 業	知 識 産 業
決定的 特徴的 投入要素	資 源	資本(機械, 原料)	知識 및 組織
技術進步의 餘地	中	大	小
資本裝備率	小	大	中

事實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어떤 産業을 主軸産業으로 삼고 어떻게 主軸産業을 發展시키느냐는 것이 主要課題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各産業部門과 經濟活動의 여러部門은 總體的인 經濟成長을 꾀 바침하듯 不比例的이지만 각기 量的인 擴大를 보여주었고 그 結果 構造의 變化를 進行하였던 것이다. 經濟의 量的擴大가 急速하였던 만큼 構造의인 面에서도 變化는 컸던 것이다.

물론 基本的인 經濟構造面에서는 아직도 60年代 初期의 狀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 國內市場은 部分的으로는 例外的인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基本的으로는 供給不足 超過需要型의 構造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勞動市場은 就業率의 向上되지 못하여 아직도 超過供給型이고 貯蓄과 投資가 關係되는 資本市場은 資本不足狀態를 보여주고 있으며 貿易市場의 赤字不均衡은 좀처럼 解消되지 못하고 있다.

部分的으로는 改善된 點도 있지만 基本的으로는 아직도 60年代 初期의 問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構造의인 變化의 局面을 엿볼수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國內生産의 急速한 增大는 供給不足 超過需要의 「갭」을 축소시켰던 것은 事實이고 60年代 初期의 높은 失業率도 이제는 상당히 낮아졌으며 國民貯蓄率도 지난 10年동안에 무려 約 4倍나 높아졌고 輸出規模와 그것이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比率도 急速한 增大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諸市場의 均衡化에 必要한 것이고 다른 事情이 一定하다면 이러한 變化가 급속히 이루어 질수록 빠른 時日안에 諸市場의 均衡的인 經濟構造는 改善될수 있다고 하겠다. 經濟成長이 急速하면 할수록 이러한 움직임은 顯著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高度成長은 生産物에 對한 需要를 增大시키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供給의 增大를 가져오는 것이고 勞動需要의 增大 國民貯蓄率의 向上 輸出能力의 增大등을 그만큼 빨리 가져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不均衡的인 經濟構造를 改善하려는 것은 經濟成長의 高率化로 나타나며 높

은 經濟成長率의 追求는 저절로 經濟構造의 改善을 促하게 한다.

이와같은 傾向은 經濟成長과 產業構造의 變動과의 關係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즉 經濟成長은 產業構造를 高度化시키고 經濟成長의 一定한 段階는 이에 相應하는 一定한 型의 產業構造를 가져온다. Colin Clark의 「經濟進步의 諸條件」⁴⁾ W. G. Hoffmann의 「工業化의 類型과 段階」⁵⁾ 에서 모두 이에 關한 實證的研究가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난 約 10年동안의 急速한 經濟成長期에 產業生産은 크게 增大하였고 產業構造의 變動도 컸던 것이며 變動의 方向도 產業發展 形態論의인 것이었다.

그러나 一定한 經濟成長의 段階에 對해서 一定한 產業構造의 類型이 一義的으로 決定된다는 것은 아니며 最適產業構造의 狀態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事前에 產業構造를 合理的으로 調整하는 政策의 努力은 더욱 必要한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高度成長과 重化學工業化段階에서의 輸出戰略을 追求하는 過程에서 產業構造를 高度化시켜야 하겠다.

2. 產業別 構造行態

1) 產業 및 就業構造

우리나라의 產業構造의 變動 및 特徵은 產業別成長率의 推移에서 볼수 있다.

<表 II -1>에서와 같이 1次産業의 成長率은 낮고 2次産業과 社會間接資本部間의 成長率은 매우 높았던 것이다. 지난 10年동안 2次産業과 社會間接資本의 成長率은 GNP 成長率의 約倍에 達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2次産業과 社會間接資本部間의 總體經濟成長에 對한 寄與率이 컸다는 사실이며 同時에 이들 部間이 總體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또한 急速히 增大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GNP에 對한 2次産業 및 社會間接資本部間의 彈性係數는 長期的으로 점차 低下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產業別 國民總生産의 年成長率(%)

區 分		1953~1957	1958~1961	1962~1966	1967~1972
農 林 漁 業		3.4	3.9	5.3	2.5
礦 工 業		14.7	8.0	14.2	20.3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서비스		4.5	3.2	8.4	12.3
社 會 間 接 資 本		15.0	9.3	16.9	19.1
其 他 서 비 스		3.5	2.4	6.7	10.4
G N P		4.8	4.0	7.8	10.8

資料: 韓國銀行

4) C. Clark. 前掲書

5) W. G. Hoffmann, The Growth of Industrial Economics, 1958,

한편 <表Ⅱ-2>에서 보는바와 같이 産業別 國民總生産額의 構成率이 비교적 급속히 變化하고 있는 것이다. 特히 1次産業과 2次産業의 構成率은 變化가 빠른 것이다. 高率成長過程은 「케티」의 法則도 強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産業別 國民總生産의 構成率(%)

<表Ⅱ-2>

區 分	年 度	1953	1961	1971	1972
農 林 漁 業		47.1	44.1	26.5	25.2
非 農 林 漁 業		52.9	55.9	73.5	74.8
鐵 工 業		7.2	11.9	24.4	26.2
社會間接 및 其他 서비스業		45.7	44.0	49.1	48.6
國 民 總 生 產		100.0	100.0	100.0	100.0

資料: 韓國銀行
 註: 1970年 不變市場價格

1972年の 産業別國民總生産의 構成을 「S·크즈넛즈」의 研究(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 II) <表Ⅱ-3>와 比較하면

① 1972年の 우리나라 1人當 GNP는 303佛임으로 「크즈넛즈」에 의한 1人當 所得階級別分類上 우리나라는 V群의 上位段階에 屬하고 있다.

② 그러나 1次産業의 構成比率은 IV群에 屬하고 있다.

③ 2次産業의 構成比率은 IV群 또는 V群에 屬하는 나라와 같은 數值를 보여주고 있다.

④ 3次産業의 構成比率은 IV에 屬하는 나라의 그것과 비슷한 것이 되고 있다.

以上과 같은 事實을 볼때 우리나라의 所得水準 또는 經濟成長의 段階는 1人當 所得으로 볼때 IV群에 屬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産業構造面에서는 IV群 나라들과 비슷한 産業構造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外形上 經濟成長의 段階를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産業別 就業構造面에서도 産業構造高度化의 추세를 볼수 있다.

1963년부터 1972년까지의 期間中 各産業의 就業者增加率을 보면

1次産業의 -3.3%, 2次産業의 98.7%, 3次産業의 52.1%, 全産業總數의 增加率은 21.6%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次産業의 停滯相과 2次産業의 急速한 成長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産業別 就業者數의 變動相을 産業別 國民總生産의 움직임과 比較하면 같은 期間중 어느産業이나 生産의 增加率이 就業者增加率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물론 이것은 生産性的

世界諸國의 1人當 所得階級別 平均所得 産業構成比(%)

<表 II-3>

(所得에 의한 平均産業構成比(%))

1人當 所得 水準	國 數	1次 産 業	2次 産 業	3次 産 業
I (1,700)	7	13.2	38.1	48.7
II (1,000)	6	17.2	41.5	41.2
III (650)	6	19.2	29.2	51.6
IV (400)	8	30.1	24.2	45.7
V (270)	8	35.4	24.3	40.2
VI (200)	10~11	42.5	17.8	39.3
VII (100)	12~13	54.6	13.7	33.3

資料: S. Kuznets,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Supplement to Volume V, No. 4, P. 10

註: 1人當 所得水準은 VII群에 속하는 나라의 1人當 所得을 100으로 基準

向上率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같은 期間중의 産業別 國民總生産額의 增加率에 있어서는 1次産業의 36.7%, 2次産業의 232.0%, 3次産業의 121.1%, GNP는 196.0%을 보이고 있다.

産業別 就業者數의 變動率은 産業別 生産額의 變動率보다 적지만 그래도 그것은 顯著한 것이었다. 이러한 就業者數의 變動率이 큰 産業일수록 生産性的 增加率이 또한 컸다는 사실을 産業別 就業者數의 變動率과 産業別 生産額의 變動率의 比較로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生産性的 向上率이 높은 産業에 資源配分이 集中化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63年을 基準으로 하여 1972년까지의 生産性的 向上率을 보면 1次産業의 42.1%, 2次産業의 61.1%, 3次産業의 42.3%의 各各의 向上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으로서 産業別 生産向上率의 隔差를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經濟의 高率成長은 이와같은 生産性的 向上率이 높은 部門에 勞動力을 더욱 많이 配分하고 生産성이 낮은 1次産業에서는 도리어 勞動力의 減少를 가져왔다. 그 結果 勞動力의 産業別構成比는 <表 II-4>와 같이 變化하게 되었다.

産業別 就業者 構成比(%)

<表 II-4>

	1963年	1966年	1970年	1972年
1次 産 業	63.2	57.9	50.5	50.6
2次 産 業	8.7	10.9	14.3	14.0
3次 産 業	28.1	31.2	35.2	35.4
總 數	100.0	100.0	100.0	100.0

資料: 經濟企劃院

이 表에서 알 수 있는 特徵은 1次産業 勞動力構成의 低下가 2次産業 및 3次産業 勞動力構成의 增大로 나타나고 있지만 2次産業과 3次産業의 構成比를 比較하면 2次産業보다 3次産業의 構成比를 比較하면 2次産業보다 3次産業의 構成비가 더욱 크게 增大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勞動力의 成長率은 2次産業이 높았는데도 構成比의 變動幅은 3次産業이 높았던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比較하면 1次産業의 比重低下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次産業이 이를 모두 吸收할 수 없고 결국 3次産業의 比重增大로 나타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世界諸國의 1人當 所得階級別

<表 II-5> (平均勞動力 産業構成(%))

1人當 所得水準	國 數	1次 産 業	2次 産 業	3次 産 業
I (1,700)	8	15.0	40.2	44.8
II (1,000)	7	31.1	31.0	37.9
III (650)	6	29.4	28.3	42.4
IV (400)	8	58.8	17.5	23.7
V (270)	5	54.5	18.9	26.6
VI (200)	7	64.8	15.0	20.2
VII (100)	6	79.9	6.6	13.5

資料 : S. Kuznets, 前掲表. 資料 P. 23

勞動力의 産業別構成을 「크즈넛즈」의 研究<表 II-5>를 토대로 國際比較하면 1次産業의 構成比는 第V群내지 第IV群에 해당하고 2次産業의 構成比는 第VII群내지 第VI群에 해당하는 것이 되며 3次産業의 構成比는 第IV群에 해당하는 셈이 된다.

이것은 所得에 의한 平均産業別構成의 그것과 比較하면 ① 1次産業의 勞動力構成比는 生産額構成比보다 相對적으로 높은 所得水準의 나라와 같은 段階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1次産業의 生産額構成比는 勞動力構成比보다 相對적으로 낮은 所得水準의 나라와 같은 段階에 있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1次産業의 勞動力比重低下와 低生産性を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② 2次産業의 勞動力構成比는 生産額의 構成比보다도 相對적으로 낮은 段階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生産額構成비가 勞動力構成比보다도 相對적으로 앞선 段階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2次産業의 生産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工業 및 投資構造

60年代의 經濟成長過程은 産業構造高度화와 工業構造의 變革을 가져왔다. 經濟成長과 더불어 一般的으로 모든 工業部門은 成長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不比例의 이었다.

어떤部門은 急速히 成長하였지만 다른 어떤部門은 成長率이 낮았던 것이다. 이에따라 어떤 産業의 構成比率는 높아졌지만 다른 어떤部門의 構成率은 멀어지기도 하였

던 것이다. 이물대면 化學工業, 金屬製品, 基礎金屬 등의 製造業은 製造業 附加值全體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向上되었지만 섬유製品, 食·飲料品, 煙草製造 其他 製品製造工業 등의 比重은 低下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韓國銀行이 分析한 우리나라 工業生産의 所得彈性值으로써도 말할 수 있다.⁶⁾ 工業生産의 所得彈性은 모두 1보다 크며 그중에서도 基礎金屬은 4.17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의 化學으로 3.82, 金屬製品의 3.31, 섬유 2.17, 食·飲料品, 煙草가 1.79, 其他製造業이 1.87로 밝혀지고 있다.

分類方法을 달리하여 全製造業을 輕工業과 重化學工業으로 나눈다면 輕工業生産의 所得彈性은 1.95이고 重化學工業의 그것은 3.64로 나타나며 製造工業全體로는 2.35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것은 工業構造의 高度化를 뜻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A. Maizels가 分析한 主要因의 工業品需要의 所得彈性(總平均 1.4~2.0)보다도 크다는 뜻에서 우리나라 工業構造高度化의 速度가 그만큼 빠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⁷⁾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經濟構造가 기본적으로 超過需要 過少供給의 狀態에 있기 때문이라 하겠으며 經濟成長의 보다 높은 段階에서는 工業生産의 所得彈性은 점차 遞減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은 工業構造高度化의 움직임은 「Hoffmann」의 比率이나 重化學工業 比率로도 잡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工業의 「Hoffmann比率」은 1963년에는 3.3이었으나 1972년에는 2.0임으로 「Hoffmann」이 말하는 工業發展의 第2段階까지 發展한 것이다.⁸⁾

그리고 이와같은 工業構造의 變化는 重化學工業化率이라는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重化學工業을 紙類 및 紙類製品, 化學 및 化學製品, 石炭製品, 유리製品 金屬製品, 機械, 電氣機械器具, 輸送機械器具 등을 망라한 것이라고 한다면 1960년의 우리나라 重化學工業比率은 23.0%였으나 1972년에는 36.2%로 向上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重化學工業比率이 엄밀한 意味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우리는 消費財工業 또는 輕工業中心의 産業構造가 점차 資本財工業 또는 重化學工業에의 길을 걷고 있다는 指標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重化學工業化의 段階는 아직도 낮은 水準에 남아있고 이 경우 우리들이 말하는 重化學工業이라는 것의 內容도 문제라 하겠다.

우선 1972년의 重化學工業化率 36.2%라 함은 1930年代 初期의 日本의 그것과 비유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또 그 內容에 있어서도 聯關效果가 큰 石油化學工業이

6) 韓國銀行, 韓國産業構造의 再編成, 1971. P. 31

7) A. Maizels; Growth and Trade, 1970.

8) 「Hoffmann」의 工業發展段階說은 第1段階에서 消費財產額과 資本財生産額의 比率이 5(±1.5):1 第2段階에 2.5(±1):1, 第3段階에 1(±0.5):1 第4段階에서는 더욱 消費財工業의 比率이 떨어진다.

나 重工業의 骨格을 이루는 機械工業의 發展이 뒤떨어져 있다는 點에서 工業構造의 高度化는 더욱 妥當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產業의 原料輸入依存度가 높다는 면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投資構造面에서 產業構造高度化를 보면 지난 約 10年동안의 高度成長은 높은 投資率의 實現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高率의 資本形成은 特히 工業과 이를 뒷받침하여 주는 社會間接資本部門에서 重中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工業과 이를 위한 社會間接資本部門의 이와같은 集中的인 資本形成의 累積的結果는 이들 部門의 資本蓄積總量을 增大시키며 工業生産能力의 增大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見地에서 먼저 60年代의 經濟成長率과 總資本形成率과의 關係를 보면

區 分	總資本形成率	經濟成長率
1 9 6 2 ~ 6 6 年	16.5(%)	8.3(%)
1 9 6 7 ~ 7 0 年	26.7	11.8
1 9 6 2 ~ 7 2 年	23.1	10.7

年間平均成長率 10.7%를 유지하는데 平均 23.1%의 總投資率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日本이나 西獨보다는 낮은 投資率이지만 다른 先進工業國의 水準을 증가하는 것이다.

사실 60年代 後半期의 높은 投資率은 日本에 다음가는 高率의 資本形成을 기록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高率의 資本形成은 海外貯蓄의 도입에 크게 依存하는 것이었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의 期間中에는 國內貯蓄率이 6.9% 였는데 비해 海外貯蓄率은 이보다 높은 8.7%였고 1967년부터 1972년까지의 기간중에는 國內貯蓄率이 15.1%였는데 비해 海外貯蓄率은 10.5% 였던 것이다. 總投資에서 海外貯蓄의 比重은 점차 減少하고 있기는 하지만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도리어 增大하여 왔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海外貯蓄의 增加率보다도 國內貯蓄의 增加率이 높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움직임을 實物的觀點에서 말하자면 國內產業의 需要가 그만큼 增大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國內產業需要는 輸入의 增加로도 充足되고 있기는 하지만 國內生産의 增加에 의해서도 充足되는 정도를 더욱 높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바꿔말해 國內產業構造는 점차 高度化하고 있지만 投資財產의 發展程度는 매우 낮으며 投資財의 輸入依存度는 아직도 매우 높은 狀態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前提에 產業의 生産能力構造를 決定하는 投資의 配分構造를 보면 產業別 構成面에서나 資本財形態別構成에서나 다같이 高度化의 경향을 엿볼수 있다. 投資의 產業別配分形態를 보면 <表II-6> 農林漁業部門은 低下傾向에 있을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또한 매우 낮고 工業化過程을 추진하는 主動的部門인 工業과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比重은 增大하고 또한 크다. 지난 10年동안의 工業部門爲主의 經濟成長過程은 이런에서 如實히 나타나고 있다.

投資의 構成(%)

<表 II-6>

區 分	1962 ~ 66	1967 ~ 72
產 業 用 途 別	100.0	100.0
農 林 漁 業	10.9	7.5
礦 工 業	25.9	23.3
社會 間接 資本	33.0	40.7
기타 서비스	30.2	28.6
資 本 財 形 態 別		
住 宅	11.4	10.8
非 居 住 用 建 物	22.5	19.7
其他 構 造 및 工 作	29.1	28.0
運 輸 設 備	11.3	17.2
機 械 設 備	25.7	24.3

資料: 韓國銀行

投資의 產業別 配分形態에서 볼수있는 이와같은 產業構造의 高度化傾向은 投資의 資本財 形態別 構成과도 밀접한 關係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住宅 및 非居住用建物の 形態로 이루어진 投資의 比重은 低下傾向을 뚜렷이 나타내는 대신 機械設備 運輸設備 등의 投資比重大을 增大하여왔던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消費的이고 非生産的인 部門에 대한 資本支出이 減少하여온 대신 直接 間接의 生産部門에 대한 投資가 增大하여 왔다는 사실을 밝혀두는 것이다. 사실 工業生産構造의 高度化는 다른 으면 資本財形態의 投資보다도 機械 및 運輸設備에 對한 投資의 增大로 더욱 나타난다고 할수 있다. 投資의 產業別構成이나 資本財 形態別 構成에서 볼수 있는 이와같은 움직임은 產業別 外資導入實績 <表 II-7>에서 무엇보다도 端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外資導入은 그것이 政策的으로 管理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工業化爲主의 政策은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外資導入이 工業推進部門에 集中的으로 이루어져야 하였다는 것은 國內産業의 資本財 供給能力이 그만큼 不足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것은 貨幣的側面에서는 國內貯蓄의 不足을 그리고 實物的側面에서는 國內産業의 資本財 供給能力의 不足을 뜻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産業構造는 高度化의 길을 걸어온것은 事實이나 產業別 生産能力의 構造面에서는 아

지도 매우 낮은 段階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産業別 外資導入 (1962~70年 累計)

農 林 漁 業	85,724千弗	4.1%
鑛 工 業	1,002,206	48.5%
社 會 間 接 資 本	977,784	47.4%
總 計	2,065,716	100.0%

資料: 經濟企劃院

3) 産業別 生産性 隔差

産業構造의 變動은 産業別 生産의 增加率이 다르기 때문이다. 産業別生産의 增加率이 서로 다른것은 需要面에서 볼때는 各産業의 生産物에 對한 需要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할수있고 또 供給面에서는 各産業의 資金單位當生産性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할수 있다. 말하자면 需要의 伸張率이 높은 生産物의 生産은 그만큼 市場이 확보될수 있기 때문에 資金單位當 生産性이 높은 産業은 그렇지못한 産業보다도 빨리 成長하여 産業構造의 變動을 결과한다.

그렇다면 需要構造의 變動과 産業別生産性의 差異는 主要한 要因이 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경우 需要構造의 變動은 産業構造의 變動을 가져오는 需要面에서의 主要因이 되기도 하지만 이와동시에 貿易構造의 變動을 또한 가져오는 것임으로 이로써 곧 國內産業構造의 變動을 直接表現하여주는 것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그러나 供給面에의 産業構造의 變動에 영향을 주는 産業別生産性의 優劣은 이로써 産業構造의 現狀과 變動方向을 나타내는 하나의 指標役割을 다할수 있는 것이다. 이런 見地에서 生産性의 産業別隔差와 産業別成長率은 現在 우리나라 産業이 어떤 狀態에서 어떤 方向으로 變化하게될 것이나를 밝혀두는 하나의 指標가 될수있고 또 그런의미에서 間接的 構造指標가 될수 있다.

就業者 1人當의 生産性은 産業別로 볼때 <表II-8>에서 볼수있는바와 같이 第2次産業과 3次産業이 가장높고 1次産業이 가장 낮다. 2次産業과 3次産業의 生産性이 높고 1次産業의 그것이 낮다는 것은 2次産業과 3次産業이 1次産業의 比較 優位의 産業이라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것은 이러한 比較優位의 産業이 急速히 成長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보여준다. 과연 現實의 經驗은 生産性이 높은 比較優位의 産業이 빨리 成長하였고 劣位의 産業인 農業은 相對的으로 停滯相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産業間의 이와같은 生産性 隔差는 經濟成長과 더불어 점차 縮소되는 것이다. 理論的으로는 限界生産力均等の 法則이 作用하고 있다고 볼수있는데 이보다도 各國의 經濟發展의 經驗이 이와같은 傾向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産業間의 生産性 隔差는

就業者 1人當 生産性

<表 I-8>

(單位: 圓)

區 分	年 度		
	1 9 6 1	1 9 6 5	1 9 6 9
全 業	62,684	94,229	130,129
1 次 產 業 (A)	34,369	62,326	77,206
2 次 產 業 (M)	204,062	172,918	202,900
3 次 產 業 (S)	163,429	125,046	207,283
A/M	16.8	36.0	38.0
M/M	100.0	100.0	100.0
S/M	80.0	72.0	102.0

資料: 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1971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1

그것이 있기 때문에 産業構造의 變動을 가능케하고 經濟成長을 促進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經濟發展의 段階가 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經濟發展의 積極적 段階에서는 産業間의 隔差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想定할 수 있으며 經濟發展의 段階가 낮을수록 그리고 産業構造가 低位段階에 있을수록 生産性的 産業間隔差는 큰 법이다.

各産業比較生産性的 國際比較

<表 II-9>

1人當 所得水準	國 數	比 較 生 産				
		A	M	S	A/M	S/M
I	7	0.86	1.03	1.04	0.86	1.01
II	6	0.60	1.26	1.12	0.52	1.14
III	6	0.69	1.01	1.23	0.61	0.85
IV	5	0.48	1.64	2.37	0.27	0.82
V	5	0.61	1.31	1.57	0.42	0.85
VI	7	0.69	1.23	2.10	0.45	0.61
VII	4	0.67	4.17	2.79	0.31	1.48

資料: S. Kuznets: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I..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Supplement to Volume V, No.2 PP. 36~41

註: A: 1次産業, M: 2次産業, S: 3次産業

Kuznets의 實證的研究(表 II-9.10)가 이를 잘 밝혀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産業別生産性隔差는 所得水準이 낮은 國家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2次産業을 기준 으로서 1次産業은 比較生産性은 지난 10年동안 상당히 向上되어 왔기는 하지만 第IV 群에서 第III群에 도달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生産所得의 産業構造의 段

階에 比하면 落後된 것이라 할수 있는데 이것은 農業部門의 相對的停滯에도 불구하고 工業化가 強行된데 연유하는 것이라 해석할수 있다.

各產業의 比較生産의 國際比較

<表 I-10>

1人當 所得水準	A/M	M/M	S/M
I	0.83	1.00	1.01
II	0.48	1.00	0.89
III	0.69	1.00	1.23
IV	0.29	1.00	1.45
V	0.46	1.00	1.20
VI	0.56	1.00	1.77
VII	0.16	1.00	0.67

註: Kuznets 前掲表를 基대로 M部門을 1로하여 計算함.

그리고 2次産業을 基準으로한 3次産業의 比較生産性도 역시 形式的으로는 第Ⅰ群의 畧에서 第Ⅳ群으로 向上된것에 不過하다고 해석할수 있다. 물론 이 경우 2次産業의 比較生産性的 向上率은 매우 빠르고 또 따라서 3次産業의 比較生産성이 이처럼 보다 높은 所得國家에서 볼수있는 것과 같이 2次産業의 生産性を 앞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시 3次産業 自体에 前近代의이고 低生産性的인 部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수있다. 3次産業에서 近代의이고 高生産性的인 部門(鐵道, 通信, 運輸等)이 차지하는 比重이 增大하면 3次産業의 比較生産성은 向上되어 마침내는 2次産業의 生産성을 上廻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3次産業生産성은 이제야 2次産業의 그것을 겨우 上廻하는 段階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工業化의 努力이 2次産業의 比重增大를 가져왔고 産業構造高度化의 形式을 갖추는데는 앞서는 것이 되지만 工業化의 努力이 農業部門과 3次産業중의 低生産部門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國際比較上 産業部門間的 生産性 隔差는 도리어 相對的으로 더욱 낮은 國家의 그것과 結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¹⁰⁾

이와같이 工業化는 그것이 急速히 追求되면 될수록 으로부터의 殘存部門의 問題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經濟成長을 効率的으로 促進하기 위해서는 殘存部門의 問題를 無視할수는 없는 것이다.

10) J. Viner S. Kuznets는 農業部門의 低生産性的인 農業自体에 根源하는 것이 아니라 農業이 擴張産業에 吸收되기에 충분한 移動性을 갖지 않은 過剩勞動力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1953)

三. 長期經濟成長과 構造高度化의 展望

1. 最適產業構造 再編成의 前提條件

産業構造는 어떤 方法으로 策定하고 어떤 方向으로 再編成하느냐 하는 課題는 經濟成長을 效率的으로 促進하기 위해서는 어떤 狀態의 産業構造가 바람직하느냐 하는 觀點에서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産業構造는 그것이 經濟成長을 效率的으로 促進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지 經濟成長과 效率的促進과 無關하여 存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計劃分析의 關点에서 政策을 論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바꿔 말해 그것은 最適産業構造의 策定에 關한 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最適産業構造의 策定은 理論的으로는 經濟全體의 投資資源을 合理的으로 配分하여 經濟成長을 效率的으로 促進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一般的으로는 投資配分の 適正化에 關한 問題가 되며 投資基準을 充足시켜주는 産業構造의 策定問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投資配分은 이로써 産業構造를 바람직한 方向으로 改編하고 經濟全體의 成長을 效率的으로 促進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産業構造의 策定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産業構造의 策定에 適用되어야 할 投資配分基準을 어떤것으로 定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

이에 投資基準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1)

- ① V. Pareto의 最適基準
- ② 社會的 限界生産力(社會的 厚生에 對한 限界貢獻度)의 基準
- ③ H. B. Chenery의 社會的 限界生産力 基準
- ④ Linea Programming에 의한 基準
- ⑤ 資本係數基準
- ⑥ 資本集約度基準
- ⑦ 再投資基準
- ⑧ 消費時系列基準
- ⑨ 償還期間基準
- ⑩ 國際收支基準
- ⑪ 外貨稼得基準
- ⑫ 比較生産費基準
- ⑬ 要素比率基準

11) 藤原三代平編; 産業構造, 1959, PP. 202~249.

- ⑭ 輸入의 國內代替率基準
- ⑮ 生産性上昇率基準
- ⑯ 所得彈性 基準
- ⑰ 均衡成長 基準
- ⑱ 不均衡成長基準(聯關效果基準)
- ⑲ 社會的 間接基準

以上과 같은 여러가지 投資基準은 各己 特徵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한가지를 絕對的인 基準으로 定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된다. 어느 한가지 基準을 擇한다 하더라도 다른 基準을 全적으로 無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具體的이고 個別的인 投資에 있어서는 역시 多角的인 觀點에서 基準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경우 서로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서로 많이 重合되기도 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投資效率의 增大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基準가운데서도 特히 重要하고 中心的인 基準으로서는 所得彈性性 基準과 生産性上昇率 基準을 擇하기로 하고 副次的基準으로서 社會間接基準을 고려에 넣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中心的인 基準으로서 所得彈性性和 生産性上昇率을 基準으로 擇하는 것은 所得의 增加에 따라 需要增加率이 顯著히 큰 産業을 造出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産業을 造出하는 것보다 需要面에서 經濟成長을 더욱 效率的으로 促進하는 길이 될 수 있고 또 供給面에서는 生産성이 높은 産業일수록 投資의 效率을 높일 수 있는 즉 經濟成長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所得彈性性和 生産性上昇率의 基準은 經濟成長의 促進을 위해 充足되어야 할 需要面에서의 條件과 供給面에서의 條件이라 할 수 있다.

所得彈性性基準과 生産性上昇率基準은 長期動態的인 觀點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基準이다. 所得彈性性基準은 所得의 增加率보다도 需要의 增加率이 훨씬 큰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投資는 需要擴大의 展望이 確實하고 또 따라서 將來의 成長産業을 造出하는데 도움이 되는 基準이 된다, 그리고 生産性上昇率基準은 生産성이 높은 産業을 위한 投資를 優先度를 주는 基準임으로, 이것 역시 將來의 成長産業을 造出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같은 基準은 바꿔말해 需要擴大로 市場確保問題가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고 技術進步의 여지가 큰 産業을 造出하는데 優先順位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所得彈性性和 生産性上昇率基準이 제시하는 바가 需要의 擴大로 市場確保가 용이하고 技術進步의 餘地가 커서 生産性的 向上率이 높은 産業의 造出을 要求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지로 産業構造 또는 工業構造의 高度化에 關한 여러가지 經濟的 法則과도 一致하는 것이다. 「Clark」의 法則이나 「Hoffmann」의 法則도 어떤 주어진 産業發展의

段階에서는 既存産業보다도 需要의 增加率이 높고 또 生産性的 向上率이 높은 새로운 産業의 造出과 發展으로 한층더 高度화된 産業構造로서 移行을 追求하는 것으로 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産業構造의 高度化나 經濟成長의 促進過程에서는 所得彈力性이 높고 生産性上升率이 높은 産業과 이를 위한 投資야 말로 바로 産業構造高度化나 經濟成長의 促進을 主導하는 産業이 되고 投資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見地에서 所得彈力성과 生産性上升率基準은 經濟成長과 産業構造再編成을 위한 主導産業(Leading Sector)의 形成을 促進하는 基準이 된다.

2. 構造高度化的 基本方向

産業構造의 高度化過程은 「Hoffmann」의 經濟的法則이 밝혀주는 바와같이 一般的으로 生産財産業 對 消費財産業의 比率를 높여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産業生産의 迂迴度가 높아가는 것도 그리고 重化學工業率이 높아가는 것도 결국은 모두 이와같은 産業間의 關係가 달라지는에서 結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産業構造高度化的 方向도 基本的으로는 生産財産業 對 消費財産業의 比率를 높히는에 있고 重化學工業 對 輕工業의 比率를 높여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理論的根據 밑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결국 이것은 이러한 産業構造高度化的 過程에서 새로운 市場의 擴大를 가져올 수 있고 보다 높은 生産性的 向上을 期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새로운 市場의 擴大는 生産物에 對한 需要의 所得彈力性이 크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供給面에서 生産性的 向上을 增大할 수 있음에 새로운 産業의 存立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사실 새로운 産業의 出現은 需要의 增大率이 높고 生産性向上率이 높은 部門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産業의 出現으로 産業構成은 變動하는 것이다.

이것은 産業發展의 初期段階에서는 需要의 增大率이 높고 生産性的 向上率이 높은 産業部門이 消費財産業이나 發展의 높은 段階에서는 需要增加率이 높고 生産性的 보다 높은 向上을 期할 수 있는 部門이 重化學工業이나 生産財産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需要의 所得彈力性이 높고 生産性向上率이 높은 産業을 主軸産業이라고 한다면 産業發展의 낮은 段階에서는 消費財産業이나 輕工業이 主軸産業의 役割을 다하는 것이고 産業發展의 높은 段階에서는 生産財産業이나 重化學工業이 需要增加率이 높고 生産性向上率이 높은 主軸産業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産業構造의 高度化는 主軸産業의 役割을 初期段階에서는 消費財나 輕工業이던것을 高度段階에서는 점차 生産財産業 또는 重化學工業으로 移行하는 過程으로 파악할 수 있다.

[Hoffmann]의 經驗的法則은 이와같은 關係를 産業構造側面에서 實證的으로 定式化한 것이다. 그렇다면 産業構成策定의 一般的 基準으로서 前記한 所得彈力性 및 生産性向上率基準은 經驗的으로나 妥當性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그렇다면 이러한 基準으로 策定된 主軸産業의 形成을 위해 不可缺한 社會間接資本의 基準도 그 位置의 重要性을 再確認되어야 할 것이다. 所得彈力성과 生産性向上率基準 그리고 社會間接資本基準은 더욱 말할 나위 없이 經濟成長을 效率的으로 促進하는데 貢獻도가 높은 主軸産業의 造出과 形成을 위한 策定基準이다.

産業構造의 高度化나 再編成은 이로써 이루어지는 主軸産業의 造出과 比重增大로 結과되는 結과다. 그러므로 産業構造의 高度化나 再編成은 主軸産業의 造出과 그 比重增大를 戒하는 것으로 現實的인 課題를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 前記 세가지 基準의 適用으로 期待되는 主軸産業은 어떤것인가 問題다. 具體的으로는 各産業에 關하여 이를 測定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主軸産業의 造出과 比重增大에 關한 것이기 때문에 多분히 「事前的」이고 「豫測的」인 作業을 要하는 것이다.

政策當局은 成長政策과 産業構造政策의 效果의 進行을 위해 미리 이러한 豫測을 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가지 基準은 우리의 경우 적어도 다음과 같은 基本的 方向을 提示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所得彈力性基準은 앞으로 國內需要의 增加率이 커질 것으로 豫想되는 部門 特히 重化學工業部門의 開發을 강조하여 할 것이다.

둘째: 所得彈力性基準은 輸出競爭力의 強化로 급속히 擴大되고 있는 輸出市場에 進出할 수 있는 輸出産業의 育成開發을 강조하여 할 것이다.

셋째: 生産性上昇率基準은 需要의 所得彈力性이 높고 「規模의 經濟」를 實現할 수 있는 部門에서 優位度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 生産性上昇率基準은 技術進步의 餘地가 큰 部門의 産業의 開發을 강조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資本集約度는 크게 달라질 수 없다는 制約이 있는 것으로 前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社會間接資本基準은 主軸産業의 積極的造出과 擴張을 위해 社會間接資本部門의 積極的開發이 또한 必要하다는 것을 말해 줄 것이다.

3. 主軸産業의 重化學工業

所得水準의 急速한 向上과 輸出規模의 急速한 擴大를 위한 産業構造의 高度化는 그 實質的인 內容이 重化學工業化의 추진에 있고 그 中核的인 役割을 主軸産業의 形成에서 期待되고 있다. 이것은 長期經濟展望이 期待하고 있는 基本方向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從來의 政策基調와 長期經濟展望의 基本展望의 基本方向 사이에 差異가 있다. 前者는 重化學工業化率이 매우 낮은 段階에서 보다 높은 重工業化率의 達成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重化學工業化의 추진이라고 보기도 차라리 一般的인 意味에서 工業化의 추진이라는 表現形式을 取하는 것이었고 後者는 보다 높은 段階에서 보다 높은 重化學工業化率의 達成을 追求하려는 것이라는 差異다.

그러나 現段階에서 産業構造高度化의 課題를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重化學工業化의 추진에 있는 것처럼 들린다. 工業化의 段階가 그 만큼 進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長期經濟展望이 成長政策의 戰略部門으로서 내세우는 産業들도 大部分 重化學工業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重化學工業化의 추진을 위해 一般的으로 내세우고 있는 政策指標로서는 現在 두가지면에서 볼수있다. 하나는 重化學工業 對 輕工業의 比率을 높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重化學工業의 程度를 反映한다고 볼수있는 輸出의 重化學製品化를 꾀하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政策的인 展望은 <表Ⅱ-1>에서 重化學工業 對 輕工業의 比率을 72年の 36.2 對 63.8에서 81年の 45.8 對 54.2로 向上하려는 것이고 商工部의 1次的인 試案은

工業構造 (單位: %)

<表Ⅱ-1>

區 分	年 度	1972	1976	1981	1976	1981
					1972	1972
製 造 業		100.0	100.0	100.0	1.96	4.60
重 工 業		36.2	40.5	45.8	2.19	5.82
輕 工 業		63.8	59.5	54.2	1.83	3.91

資料: 우리經濟의 長期展望作成 指針(經濟企劃院)

輸出規模 100억달라에 達成時에는 重化學工業製品을 60억달라에 達하도록 期待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展望的試圖가 計劃으로서 確立的인 것인가의 興否를 따질수는 없는 것이고 또 따라서 이와같은 展望的試圖가 앞으로 더욱 修正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우리는 重化學工業化의 基本的인 政策方向을 윤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工業全体에서 重化學工業의 차지하는 比重이나 輸出商品 가운데서 重化學工業 製品이 차지하는 比重은 成長政策의 두가지 基本目標가 達成될때에는 다같이 60%程度에 達하게 된다는 것을 政策은 期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重化學工業化의 基本方向은 이와같이 設定되었다 하더라도 실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具體的으로 어떤産業을 重化學工業化의 對象으로 삼느냐하는 課題와 말하자면 이것은 重化學工業化를 위한 具體的인 戰略産業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重化學工業化의 추진을 위해 政策的으로 論議하고 있는 選出對象産業을 보면 그것은 우선 鐵鋼, 造船, 機械, 電子, 化學工業 등의 5個部門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經濟的水平線이 擴大되어감에 따라 더욱 많은 産業들이 建設의 對象으로 論議될 수 있을 것이다.

4. 最適成長經路와 産業構造

産業構造高度化의 정도는 所與의 所得水準 밑에서 各産業에 對한 需要의 所得彈力성이 어떤 分布를 가져 있고 이들 産業의 比較生産性(動的으로는 生産性上昇率)이 어떤 構造를 갖느냐에 따라 決定된다함은 이미 論한바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로부터 一定所與의 所得水準 밑에서도 最終需要의 形態를 人爲的으로 變更시킬 수 있고 「規模의 經濟」를 누릴 수 없는 産業에 대해서도 生産性を 크게 높일 수만 있다면 産業構造를 變動시키는 需要面에서의 要因인 所得彈力성과 供給側의 要因인 生産性向上率을 다같이 變更시킬 수 있다는 結論을 도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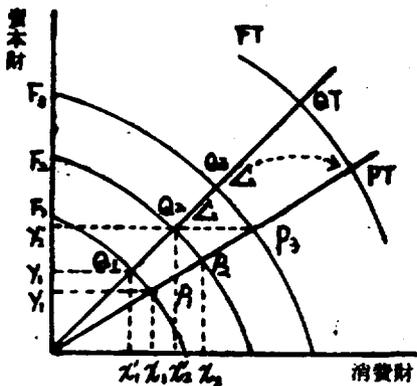
그러므로 이것은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資本財産業의 比重增大라고 한다면 資本財에 대한 需要增大策과 資本財産業의 急速한 生産性向上策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경우 資本財産業의 生産性向上率 또는 그 靜態的 表現으로 比較生産성은 生産의 規模가 一定으로 所與된다면 이것 역시 短期的으로는 一定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産業構造變動의 決定的인 要因은 最終需要의 形態를 變更시켜 資本財에 對한 需要增大를 꾀함으로써 資本財産業의 所得彈力성을 높이고 資本財産業의 比較生産성을 높일 수 있도록 「規模의 經濟」를 實現케 하여 주는 일이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資本財産業의 比重을 어느 정도로 높이고 또 이러한 資本財産業의 比重을 결정하는데 決定的인 영향을 주는 投資率과 投資支出의 形態를 어떻게 決定하느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貨幣的側面에서는 消費支出과 投資支出의 比重을 어떻게 決定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實物面에서 消費財(生産)과 資本財(生産)의 比率를 어떻게 決定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生産物比率決定의 基準은 經濟成長을 위한 最適經路에서 求해야 할 것이다. 成長에 따르는 部門別構成比의 時間經路는 理論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이만」(Neumann)成長經路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産業의 部門別構成을 단순히 消費財과 資本財을 生産하는 2個部門으로 分割하여 初期의 均衡點을 <圖表Ⅲ~2>의 P_1 點이라고 하자 그리고 經濟가 均衡點 P_1 에 있을 때 經濟가 가능한 모든 資源을 利用하여 生産할 수 있는 可能한 最大限의 消費財과 資本財은 生産可能性曲線 F_1 으로 表示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經濟가 初期의 均衡點에서 만족한다면 次期의 生産可能性曲線을 決定할 수 있는 資本財의 生産은 Y_1 의 크기에서 만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P_1 點에서 消費財의 生産과 消費量($x_1 - x_1'$)

만큼 희생한다면 이로써 생기는 餘裕資源을 資本財의 生産으로 돌릴수 있으므로 資本財의 生産과 投資를 初期의 Y_1 에서 Y_1' 로 높일 수 있다.

따라서 經濟는 이제 初期의 均衡點 P_1 에서 曲線 F_1 上的 Q_1 으로 移動하게 되어 次期의 生産可能性曲線을 F_2 로 높일수 있다. 그러면 經濟는 다시 P_2 點에서 均衡을 이룰수 있지만 社會的選擇이 다시 生産可能性曲線 F_2 上的 Q_2 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消費財의 生産과 消費를 $(x_2 - x_2')$ 만큼 生産할 수 있어 次期의 生産可能性을. 그렇지 않은 方法에 의한 것보다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生産可能性曲線은 F_3 이고 T期의 消費財와 資本財의 生産과 消費의 목표를 F_3 線上에서 지정 없이 求할 수 있다. 만약 成長計劃이 T期에 消費財와 資本財의 生産構成率의 P_3 點에서 定한다 하더라도 OQ_3 線上의 途中까지는 消費財의 生産을 延期함으로써 P_3 點에 지정 없이 到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OQ_3 線이 最適成長經路이고 이 經路는 消費財生産과 資本財生産의 構成比率을 또한 最適으로 決定하여 주는 것이 될것이다¹²⁾

노이만의 成長經路

<圖表 III-2>



資料: Daniel B. Souts, Principles of Economics, 1970.

變更시키는 일이 되고 長期的으로는 最適成長經路가 産業의 所得彈性과 生産性向上率에 關한 基準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되도록 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短期的으로는 最適成長經路가 所得彈性과 生産性向上基準을 만족시켜 준다는 保證은 없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經濟成長을 效率的으로 促進하기 위한 産業構造高度化는 資本財生産을 위해 어떻게 配分하느냐란 問題를 提起한다고 하겠다.

12) Daniel B. Souts, Principles of Economics, 1970, PP. 70~73

四. 産業構造 再編成의 基本課題

1. 投資政策 및 資本動員

産業構造高度化는 이를 위한 投資의 増大를 要求한다. 産業構造의 內容이 工業部門 그중에서도 特히 重化學工業部門의 急速한 成長과 比重増大를 意味하는 것이라면 投資政策面에서도 그것은 工業部門 그중에서도 特히 重化學工業部門에 對한 投資의 増大를 實現하지 않으면 안된다. 政策이 아무리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강조하고 重化學工業化를 力說한다 하더라도 投資政策面에서 이를 위한 實質的인 뒷받침이 없으면 그것은 無意味한 일이 되고 만다.

그러기 때문에 産業構造의 高度化나 重化學工業化를 추진하려면 여기에는 반드시 工業部門이나 重化學工業部門에 對한 部門別計劃이 없으면 總體的인 投資의 規模面에서는 計劃이 實行된다 하더라도 部門別로 投資가 計劃대로 實行된다는 保證은 없는 것이다. 또 部門別投資計劃이 마련되어 있고 優先順位가 주어져 있다면 실명 總投資計劃에 차질이 일어날 경우에도 優先的인 部門의 投資計劃은 計劃대로 實行할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해서는 工業部門의 投資計劃이 具體적으로 策定되어야 하고 重化學工業部門에 對한 投資計劃主軸産業建設을 위한 投資計劃을 業種別投資單位別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總量的投資計劃은 실명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産業構造高度化를 計劃대로 遂行할수 있다는 保證을 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投資計劃은 그것이 總量的이건 部門別이건 또는 業種別이건 再投資를 區分해야하고 固定投資와 在庫投資를 구분하는 綿密性을 要求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投資計劃은 그것이 産業構造高度化내지 重化學工業化를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결국 總投資額의 工業部門 또는 重化學工業部門에 對한 配分率의 増大라는 形式으로 나타날 것이다. 말하자면 産業構造高度化는 生産面에서 GNP가운데서 차지하는 工業生産의 比重増大이고 投資面에서는 總資本「스톡」가운데서 工業資本「스톡」이 차지하는 比重의 増大 또는 總投資의 工業投資配分率의 増大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産業構造高度化의 問題는 工業投資配分率의 引上問題가 되고 더욱 一般的으로 投資의 部門分割問題가 된다.

一般的으로 産業構造高度化는 部門別 또는 産業別 資本係數에 差異가 있다면 差異의 比率만큼 生産額增加分割比重的 變動에 加重하여 投資配分率의 크기를 달리한다고 볼수 있다. 이를테면 初期의 國民總生産額을 y , 工業生産所得을 y_m , y 의 每期成長率을 g , y_m 의 每期成長率을 g' 라 하고 y 部門과 y_m 部門의 限界資本係數를 각각 v 와 v' 라고

한다면 産業構造高度化는 初期의 y_m/y 가 n 기에 $y_m(1+g')^n/y(1+g)^n$ (但 $g' > g$)로서 表現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뒷바침 해야하는 工業投資 配分率은 初期의 $v' \cdot \Delta y_m / v \cdot \Delta y$ 에서 n 기에는 $v' \cdot y_m(1+g')^n - 1 / v \cdot y[(1+g)^n - 1]$ 로 決定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때 工業部門의 成長率과 限界資本係數는 總體經濟의 그것보다 모두 높으므로 工業部門의 投資 配分率은 훨씬 많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것은 重化學工業 또는 輸出部門 投資 配分率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要領으로 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工業部門 또는 重化學工業部門에 대한 投資 配分率의 增大가 곧 産業構造高度化의 한 側面이 된다는 뜻에서 産業構造高度化의 推進은 工業部門의 投資 配分率을 增大시키기 위해 工業部門의 成長率을 높일것은 물론 資本係數가 큰 部門에의 投資를 또한 增大시켜야 한다.

따라서 産業構造高度化의 政策的要求에 부응하여 高率成長을 지속하려면 鑛工業生産 所得이 거의 半에 가까운 高率投資를 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高率의 投資를 鑛工業部門 自体임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明白한 일이다. R. Harrod로 이를 表現한다면 鑛工業部門의 所要投資率은 $gmC_m = S_m$ (但 gm 은 鑛工業의 成長率 C_m 은 鑛工業部門의 限界資本係數 그리고 S_m 은 鑛工業部門의 必要投資率)와 같이 될 것인데 鑛工業部門의 資本供給力은 일반적으로 S_m 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즉 鑛工業部門의 資本供給力은 生産所得에서 勞動分配과 配當所得에서 投資로서 遞流되는 部分을 除外한 만큼은 消費와 다른 部門에 대한 投資로서 漏出된 것이므로 經驗적으로 이는 S_m 을 훨씬 下廻하는 貯蓄率밖에 안되고 따라서 前記의 均衡式은 도저히 유지 안된다.

이는 現實적으로 鑛工業部門의 所要投資中 상당한 部分을 他部門으로 부터의 貯蓄供給에 의해 充當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리까지므로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한 投資計劃은 資本의 調達을 얼마만큼 鑛工業部門 自体의 蓄積力으로 해결할 수 있고 얼마만큼을 他部門(外國 포함)으로 부터의 資本調達로 充當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다음 이러한 所要資本의 調達을 微觀적인 企業經營의 觀點에서 合理的이고 健全한 方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理由로 自己資本比率의 策定을 適正한 線에서 行해야 한다.

그러면 실지로 投資의 自己資本比率은 어느 水準에서 策定하는 問題가 資本動員政策上 重要한 課題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投資의 自己資本比率이 策定되었을 경우 이것이 鑛工業部門의 資本蓄積力으로 지켜진다는 保證은 없다. 一般적으로 自体資本蓄積力으로써는 必要한 自己資本을 充當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高率投資時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면 이럴 경우 投資政策과 企業이 取해야할 措置는 必要自己資産의 不足分을 株式 公募나 他部門에 의한 續工業部門投資·外國人の 直接投資 등으로 自己資本을 擴充하는 筈이다.

追加的인 外部資金의 調達에 關係서도 計劃은 合理的인 原則을 마련하고 具體的인 計劃을 세워서 한다. 總體的인 計劃은 微視的인 企業投資活動의 健全성과 合理性을 根據로 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社債發行으로 可能的인 資本調達の 규모 國內金融과 外資導入으로 可能的인 資本動員의 규모에 關係 具體的인 計劃이 必要한 것이다. 企業投資의 健全化는 高率投資期에 일어나기 쉬운 投資의 自己資本 比率低下現象을 극력 억제하는 努力과 對策을 要求한다. 이런 見地에서 金融機關의 資金供給能力은 經濟活動規模에 따라 急速한 擴張과 大型化의 措置를 要한다.

2. 雇傭構造 및 勞動力需給의 變化

産業構造高度化의 過程은 雇傭構造와 勞動市場에 對해서도 變化를 가져오고 變化를 要求하는 것이다. 즉 産業構造高度化는 工業部門의 雇傭量을 增大시키고 就業比重의 增大를 가져오며 生産성과 賃金의 上昇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 相當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産業構造의 高度化는 雇傭構造와 勞動市場에 關係 計劃을 또한 包含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基本的關係를 고려해 놓아야 할 것이다.

① 經濟成長率이 높아지면 雇傭量도 增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雇傭의 生産彈性性이 1일 때는 雇傭의 增加率은 生産의 增加率과 같게 될 것이다. 그러나 雇傭의 彈性性은 1보다 훨씬 적으므로 雇傭의 增加率은 生産의 增加率보다 훨씬 낮은 數值를 取하게 된다. 이것은 勞動生産性의 向上에 因하다.

② 그런데도 「經濟長期展望」이 前提하고 있는 人口의 增加率은 低下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人口增加率의 低下는 勞動人口構成率이 短期的으로 큰 變動을 갖지 않을 것임으로 勞動力의 供給增加率의 低下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前記한 雇傭의 急速한 增大는 現在의 失業과 潛在失業의 吸收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暗示하게 前提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勞動人口構成率의 增大 즉 靑壯年令層人口의 增大 勞動人口의 老令化와 幼年化, 婦女勞動力供給의 增加로 勞動力의 需要增加에 對處하여야 한다. 이것은 現在의 雇傭狀態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見解를 달리하는 問題를 提起할 것이다.

③ 그런데 現在의 雇傭總計는 失業率이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景氣狀態가 沈滯하였던 71~72年の 경우 經濟活動人口에 對한 失業者의 比率은 불과 4.5%라는 準完全雇傭의 水準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統計는 처음부터 經

濟理論으로는 無意味한 것이고 不正確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雇傭狀態를 파악하고 計劃을 세우는데 이것이 間接的인 指標로 利用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두가지 見解를 말할수 있다. 첫째는 이 統計를 近代的인 것으로 보는 경우이고 다른 한가지는 이 統計가 全的으로 無價値한 것으로 棄却하는 경우다, 前者의 見解에 따르면 失業은 高率成長에 따라 2~3年內에 완전히 解消될수 있고 3~4年後 부터는 勞動力不足의 狀態가 到來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럴경우 經濟의 高度成長은 勞働人口 構成率의 增大 生産性의 급속한 向上을 期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産業構造高度化는 勞働節約인 方法으로 이루어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勞働不足은 賃金의 急速한 上昇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뜻에서 勞働力不足과 賃金의 上昇은 經濟成長과 産業構造高度化에 대한 制約要因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政策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後者の 見解에 따르면 經濟成長과 産業構造高度化는 상당한 期間에 걸쳐 資本節約的方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低賃金의 기초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短時日안에 이루어진다고는 볼수없다. 隘路가 있다면 部門間的 勞働力移動性이 不完全하고 機能工不足과 같은 特定分野의 勞働力不足과 같은 現象이라 할것이다. 말하자면 重要한 課題는 勞働力不足이라기 보다는 勞働力市場의 不完全性을 어떻게 克服하느냐하는 문제가 될것이다.

④ 以上과 같은 事情을 고려에 넣을때 産業構造高度化는 이에 따라 增大하는 勞働力需要에 원활히 對處할수 있는 勞働力供給計劃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現在의 雇傭狀態와 勞働力市場에 關한 正確한 論評과 分析이 行해져야 할 것이다. 高率成長과 産業構造高度化政策을 長期的으로 持續하려는 立場에서도 종래와 같은 勞働力過剩供給과 低賃金의 持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不合理한 것이다. 産業構造高度化와 重化學工業化를 위한 勞働力供給은 一般的으로 工業勞働人口의 增大를 뜻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工業勞働人口의 業種別 職種別構成의 變化를 要求하는 것이므로 政策과 計劃은 당연히 이를 위한 保證策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이 경우 급속한 工業化와 生産性의 向上은 熟練工 技能工 管理層의 大量確保를 特히 要하게 된다

3. 技術開發

産業構造高度化와 經濟의 急速한 成長은 生産性의 급속한 向上에 의하여 급속히 달성될수 있고 生産性의 急速한向上은 主로 産業技術의 革新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 이것은 産業構造高度化의 方向이 主로 國內需要의 增大와 直結되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것이 輸出增大와 밀접히 結付된 것이라면 더욱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國內産業의 構造高度가 輸出의 增大와 輸出商品의 構造高度化를 前提로 하고 있다면

이를 左右하는 것은 産業의 輸出競爭力을 強化할수 있는 優秀한 技術의 導入과 開發採擇을 要求하는 데까지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新技術의 採擇은 先進技術의 단순한 追從的採擇이 아니라 生産費面에서 相對的으로 有利한 능가적採擇이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前提 밑에 産業構造高度化가 要求하는 技術開發의 몇가지 特徵的側面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新技術分野의 開拓—産業構造高度化는 새로운 主軸産業의 造出과 形成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에 必要한 新技術의 導入과 開拓을 꾀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主軸産業의 形成을 鐵鋼, 造船, 機械, 金屬, 石油化學部門에서 期待하고 있다면 이에 所要되는 새로운 技術을 質, 量兩面에서 確保하여야 한다.

② 設備의 近代化—새로운 産業에서는 물론 既存産業에서도 施設의 近代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技術革新의 物的形態는 施設의 近代化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特別히 勞動市場이 超過供給型에서 過少供給型으로 轉移하고 低賃金의 기초가 무너지면 切實한 課題가 될것이다.

③ 大型工業技術의 導入—重化學工業化의 추진은 「規模의 經濟」를 期해야 하고 大量生産體制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傳統의인 零細生産의 低位技術爲主의 技術體系를 大型工業技術型으로 轉換토록해야 할것이다. 이것은 비단 生産에서 뿐만 아니라 輸送面에서도 「大量輸送技術」의 開發이라는 形式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④ 對外技術 隔差의 縮少와 解消—産業構造의 方向이 輸出指向的인 産業의 造出과 擴張을 위한 것이라면 輸出競爭力強化를 위해서는 對外技術格差를 縮소 해소해야 할것이 강력히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外國技術의 導入對象을 原則的으로 輸出競争上 有利한 技術에 限定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輸出競争上 有利한 技術水準을 계속 確保하기 위해서는 技術의 自主開發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욱 輸出의 重化學工業製品化 내지 資本財는 附帶技術의 輸出을 수반할 것임으로 後進落伍技術으로써는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이 困難하게 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重化學工業化는 重化學工業技術의 導入과 開發을 필수적인 課題로 삼게하는 것이고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은 重化學工業製品의 附帶技術의 輸出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對外競争産業에 關한 限 對外技術 格差는 하루빨리 縮少되고 解消되어야 하며 技術輸出의 態勢를 갖추도록 努力해야 한다.

⑤ 科學技術人口의 增大—産業構造高度化는 科學技術人口의 增大를 要求한다. 科學技術人口의 充分한 確保없이 産業構造高度化의 순조로운 추진은 바랄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分野別 部門別 需給計劃을 마련하고 미리 차질없는 確保策을 강구해야 한다. 科學教育和 研究를 위한 投資가 計劃性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科學技術人口의 養成을 위한 投資가 懷妊期間이 長期임으로 投資計劃은 産業投資計劃에 될

선 先行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4. 資源確保의 合理的 體制

經濟의 高度成長이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重化學工業化로 이루어질때 資源및 에너지 需要가 急増할 것이므로 이에 關한 豫測이 必要하다는 것은 이와같이 急増하는 所 要資源을 어떻게 確保하느냐 하는 供給面에서 어려움이 豫想되기 때문이다. 이미 벌써 一部資源은 枯渴되어가고 있으며 資源의 賦存量과 供給量은 制限的이다. 여기에 더욱 後進國에서는 經濟的 內소남리증이 대두하여 資源供給이 如意치 않게되고 있다 이와같은 事情인데도 世界的인 資源需要는 急増하고 있으므로 資源의 安定的 確保는 점차 곤란할 것이 豫想된다. 國內資源의 賦存量이 빈약하고 開發이 뒤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經濟成長과 重化學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점차 심각한 資源문제에 봉착하게 될것이다. 主要資源의 海外依存도가 높은 韓國經濟로서는 重大한 課題가 되고 있다. 따라서 經濟成長과 產業構造高度化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資源의 安定的인 確保策을 需要와 供給의 兩面에서 追求되어야 할것이다. 需要面에서는 產業構造高度化 즉 重化學工業化라는 資源多使用의인 產業化의 方法을 可能하다면 資源節約의인 產業으로 代置하는 길을 우선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資源節約의인 產業構造高度化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知識集約的 商品의 製造部門이던 重化學製品의 高度化이던 또는 知識情報 產業에의 轉換이던간에 이것은 產業發展의 段階가 1次的 내지 原型的인 重化學工業化 段階보다 더욱 높은 것이므로 아직도 產業으로서의 成立 條件의 成熟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生産方法의 改善에 의한 資源節約과 代替는 技術進步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이 可能하다 하더라도 偶發的이고 制約的인이다. 그렇다면 資源에 對한 需要의 增大는 主로 供給의 增大로 對處될 수 밖에 없다. 可能한 길은 國內資源의 開發과 海外資源의 導入增大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開發possible한 國內資源부터 最大限 開發하여야 한다.

그러나 國內資源賦存의 制約性을 고려할때 主로 海外資源의 導入增大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重化學工業化의 추진은 결국 海外資源의 急速한 導入增大를 반드시 수반한다.

그러면 需要急増에 對處할 수 있는 供給增大策面에서는 여러가지 方法을 追求하여야 할것이다.

① 國內資源의 保護와 開發—資源確保策은 우선적으로 國內資源을 開發하고 利用하여야 한다. 資源의 對外依存도를 줄이고 外貨支出을 節約하고 國內產業의 自立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開發은 亂開發形式이 아니라 秩序있고 保護받는 形式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資源의 輸出은 韓國產業의 發展이라는 眼目에서 長期

需給展望이 許容하는 범위안에서만 制約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海外資源의 開發輸入—世界資源의 供給이 需要增大에 對處할 수 없고 供給不足이 豫想되는 狀態에서 가장 效果的인 海外資源의 安定的 確保策은 海外資源의 開發輸入이다. 이를 위해서는 韓國企業에 의한 單獨投資方式 資源保存國과의 共同開發, 國際大資本과의 共同投資消費國과의 共同開發形式등 여러가지 形式의 開發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③ 長期契約方式의 活用—資源의 長期的 安定確保는 供給國과의 長期契約 方式으로 가능하다. 供給國에서는 輸出市場의 長期的 安定化를 뜻하는 것이 될수 있을 것이다.

④ 資源의 現地加工에 의한 二次資源의 輸入—이것은 主로 先進工業國이 後進國의 低賃金を 利用하고 國內 公害問題와 工場立地難을 해소하기 위한 方法으로 追求되고 있는 資源確保策이다. 工業化의 初期段階에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方法을 쓸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重化學工業化가 進行되면 이런方法도 外面 할수 없는 것이다.

⑤ 國內備蓄의 增強—海外資源의 供給不安과 價格波動을 회피하고 國內産業에 適期 適量 適價 供給을 위해 主要資源의 國內備蓄을 增強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企業採算爲主의 適正在庫量을 넘어선 것이고 따라서 부담의 增加는 財政이 擔當하지 않으면 안된다. 具體的으로는 CTS의 建設, 備蓄基金의 輸出등의 問題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⑥ 國際原料 市場에의 直接參加—海外資源의 確保를 위한 方法으로서 國際原料市場에의 直接參加方式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現物市場」 뿐만 아니라 「先物市場」에의 積極參加를 通해 所期の 目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貿易外換管理制度面에서 이것이 可能하도록 措置를 取해야 할 것이다.

⑦ 資源供給源의 分散—資源供給源의 單一集中은 위험의 集中을 뜻한다. 供給地域은 地理的角度에서 分散되어야 한다. 單一供給源에 依存하는 重化學工業化는 經濟的으로나 政治的으로 그리고 軍事的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될수 없다.

⑧ 資源流通手段의 整備—資源需要의 급속한 增大와 大量化는 流通手段의 整備와 体制의 改善을 要求한다. 大量輸送手段으로서 大型탱커 大型鑛石專用船 등의 船舶增量陸上輸送의 能率化와 大型化등을 꾀해야 하고 이에 따르는 關聯技術과 投資物的 流通施設의 改善과 近代化등을 또한 實現해야 한다.

⑨ 에너지資源 供給의 多樣化—에너지資源에 對한 需要增大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産業의 「省에너지化」가 강구되는 한편 에너지供給源의 多樣化를 적극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종래와 같은 石油資源과 電力, 石炭외에 原子力의 利用등으로 供給源의 多樣化를 꾀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단 國內的인 事情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的인 에너지위

기의 克服이라는 觀點에서도 慎重한 政策을 要하는 問題라고 하겠다. 産業構造의 高度化가 産業에너지 使用指向化를 뜻하는 것이다.

① 海洋資源의 開發—海洋資源 特히 大陸棚資源의 開發이 必要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政府의 積極助成策이 必要한 것이다. 이것은 長期的인 資源對策으로서 看做될 수 있을 것이다.

5. 規模의 經濟性

産業構造의 高度化는 産業規模의 大型化를 가져온다. 重化學工業化는 그 內容이 主로 金屬 機械 化學工業의 發展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것역시 工場規模의 大型化를 가져온다.

産業構造의 高度化가 工場과 企業의 大型化를 가져오는 公式은 우리의 경우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한가지는 産業構造의 高度化過程에서 일어나는 資本의 集中과 集積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産業構造高度化를 輸出競爭力의 強化와 結付시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政策的要求가 規模의 大型化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보는 點이다.

經濟의 急速한 成長은 産業의 急速한 成長을 催하고 産業의 急速한 成長은 産業構造에 크다란 變化를 가져온다. 産業構造의 變化는 産業間의 關係를 變化케 하는 것이지만 이는 동시에 産業內에서의 企業間의 競爭關係를 또한 變化케 하는 것이다. 産業의 成長過程은 필연적으로 産業內에서의 企業間의 競爭을 通해 企業集中化의 現象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産業內의 企業間의 競爭關係는 다시 變化한다고 하겠다.

물론 短期的으로는 經濟成長에 따라 企業集中度가 低下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成長率이 높은 産業에서는 供給의 增加速度가 需要의 增加速度에 따르지 못하여 超過利潤이 發生하고 「新規加入」을 불러 일으키기 쉽고 따라서 新規加入이 많으면 既存企業의 「市場占據率」은 당연히 低下하게 된다.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産業의 成長이 빠르면 빠를수록 企業의 集中度가 低下하는 傾向을 여준다. 이와 반대로 産業의 成長率이 낮은 部門에서는 利潤率의 低下때문에 「新規加入」은 없어지고 既存企業間에 市場占據率의 增大를 위한 競爭이 激化되어 企業集中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衰退産業에서 企業集中度가 높아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成長産業部門에서의 企業集中度 低下傾向과 衰退産業內에서의 企業集中度 增加傾向은 短期的이고 經過的인 現象이다. 長期的으로는 産業의 成長과 高度化에 따라 産業集中度는 增大하게 되고 獨占과 寡占을 가져오는 것이다. 大規模化의 實現을 통해 經濟의 利益을 얻을 수 있는 部門일수록 이와같은 傾向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産業의 急速한 成長과 高度化에 過程은 短期的으로는 部

分的인 企業集中度低下現象을 수반하면서 결국은 企業集中化의 경향을 強化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따라 產業은 獨占과 寡占化의 度を 높이고 점차 獨寡占의 硬直性의 特性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產業의 成長과 構造高度化로 進行된 企業集中度의 上昇은 결국 企業과 工場의 規模大型化를 結果하는 것이지만 이와같은 規模大型化의 길은 市場「메카니즘」을 통하지 않고서도 政策的으로 追求될 수도 있는 것이다. 產業構造高度화와 重化學工業政策은 이로써 이루어질 產業의 輸出競爭力을 強化하고 生産코스트의 節減을 期하기 위해 처음부터 大單位工場을 建設하는 것이 有利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產業의 輸出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國際競爭單位의 規模를 確保해야 하는 것이다. 產業이 國內市場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大單位工場을 세워 生産費를 節減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러한 大單位工場은 企業의 獨寡占化를 가져올 可能性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그것은 先端產業이라는 까닭으로 新規産業이기 때문에 그렇고 國內市場이 협소하기 때문에 多數의 新規加入이 사실상 無理하다는 까닭에서도 그러하며 新規大單位産業(工場)의 建設은 外資導入政策, 金融支援, 産業政策上 여러가지 政策的, 行政의 支援를 받아야 하나 政策은 需要를 무시한 多數의 新規加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또한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產業構造高度化의 政策은 이런 까닭으로 端的으로 말하면 獨占과 寡占은 무릅쓰고 大單位의 主軸産業을 建設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產業構造의 高度화와 重化學工業化는 그것이 市場메카니즘을 통하면 또는 政策的 要請에 의하면 規模의 大單位를 가져오고 企業集中度의 増大를 結果할 公算이 크다. 이러한 傾向은 產業構造高度化政策이 意慾적으로 追求되면 될수록 더욱 促進될 것이다. 따라서 產業構造高度화나 重化學工業化는 規模의 大單位를 追求하는 政策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뜻에서 그것은 企業集中의 促進과 獨寡占化의 促進이라는 一面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產業內의 企業間競爭關係에 또한 큰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五. 結 論

産業構造再編成의 課題는 어떤 産業을 主軸産業으로 삼고 어느정도로 發展시키느냐는 것만으로 不充分하다. 어떻게 하면 發展시킬 수 있느냐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는 허다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産業構造高度化의 政策의 要求가 오로지 經濟의 高度成長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輸出의 急速한 増大를 達成하는데도 있다는 뜻에서 그것은 새로운 輸出産業의 造出과 形成과도 얽혀있기도 한 것이다. 産業構造高度化는 主軸産業의 形成이라는 뜻에서 主軸産業形成을 위해 방대한 投資를 要한다. 그것이 重化學工業化를 의미한다는 뜻에서는 重化學工業化의 추진을 위해 방대한 規模의 資本形成을 要求하는 것이다. 또 表現을 달리하여 그것이 資本財産業이나 輸出産

業의 出造開發이라는 뜻에서는 마찬가지로 巨額의 投資를 要하는 것이다. 主軸産業을 重點的으로 形成하는 경우에도 다른 産業의 成長은 필요함으로 또한 巨額의 投資가 所要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資本調達의 문제를 提起하는 것이다. 主軸産業의 出造과 發展, 즉 重化學工業化의 추진은 이에 必要한 充分한 量과 質의 勞動力의 確保를 必要로 하고 原料確保, 産業技術의 革新, 社會間接資本의 形成 등에 關한 課題를 提起한다. 生産規模의 擴大에 따라 勞動力市場의 需給狀態가 점차 달라질 것이 豫想됨으로 重化學工業化의 적극추진은 勞勤의 移動性을 充分히 確保할 것이 要求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原料의 大量確保問題를 提起하고 産業技術의 革新을 부단히 要求한다. 물론 이러한 原料確保나 産業技術革新의 問題는 단순히 重化學工業의 比重增大를 期하는 경우에도 성실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만 重化學工業이 輸出增大와 結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見點에서 有利하게 解決되어야 한다는 要求를 充足시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重化學工業化의 方向에서 輸出競爭力이 優越한 主軸産業의 形成은 規模의 大型化를 필연적으로 要求한다. 企業 및 生産의 集中化를 처음부터 要求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獨占과 寡占의 形成을 意圖적으로 助長하는 것이 된다. 市場構造는 처음부터 非競爭의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背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욱 經濟의 效率性을 올리기 위한 産業活動의 「시스템」化는 企業活動의 有效競爭을 阻害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産業構造高度化의 추진은 이로 말미암아 獨寡占의인 硬直性을 날로 더하게 될 것이고 갖가지 弊害를 發生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重化學工業化의 추진에 따라 심각하게 提起될 公害, 環境汚染의 問題와 더불어 重化學工業化의 否定的側面이 된다.

물론 이와같은 否定的인 側面은 그대로 放置할 수 없는 問題다. 「規模의 經濟」는 발휘되어야 할 것이지만 獨寡占의 弊害는 마땅히 除去·規制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産業組織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우리는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工業化의 初期段階에서는 이것이 너무 等閑視되었고 意識적으로 회피된 感이 없지 않다. 그 結果는 産業組織政策의 不在 내지 混亂을 가져왔고 經濟의 效率性을 심히 低下시키는 것이 되었다. 生産力의 規模擴大過程은 이와같은 狀態를 언제까지나 그냥 지속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獨寡占과 企業集中 그 自体는 부득이 하고 또 政策의 必要한 것이라 하더라도 市場行動과 市場成果面에서는 獨寡占의 行動과 弊害는 단호히 規制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産業構造高度化는 産業組織政策面에서도 새로운 政策을 展開하여야 할 必要性을 提起하고 있는 것이다. 産業構造高度化의 추진은 그것이 意圖的일수록, 이를 위해 必要한 社會間接資本을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形成할 것을 要求한다. 여러가지의 大規模工業園地를 造成할 필요도 있고 産業規模擴大에 따른 여러가지 外部經濟의 出造과 供給이 아쉬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社會資本의 地域間不均衡是正이라는 制約條件을 充分히 고려에 넣어야 한다는 課題를 提起한다는 點을 看過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듯 産業構造高度化의 課題는 결코 단순치는 않는 것이고 여러가지 問題들 안고 있는 것이다.